종무행정 인재양성 본격화

불교아카데미 '사찰모형탐구' 관리자 과정
부산불교교육원 '종무원 육성학교' 개설

사찰 경영 및 종무행정에 대한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의 '21세기 사찰 모형 탐구' 경영관리자 과정과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의 '불교종무원 육성학교'가 그것. 불교아카데미의 강좌가 사찰 주지 및 실 · 국장급 간부에 대한 사찰경영관리 교육이라면 '불교종무원 육성학교'는 35세 이하의 젊은 불교 일꾼들에 대한 기본 종무행정 교육이다.

이같은 사찰 경영관리자 및 종무원 교육과정은 교계 최초의 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사찰의 경영혁신과 포교 전문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보화시대 사찰운영의 신경영모델 창출을 위한 조직, 정보, 마케팅의 학습과 활용을 통해 21세기 종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불교아카데미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사찰 주지, 복지관장,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 등 11명을 비롯 관리자급 종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사찰 모형 탐구' 제하의 제1기 경영관리자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의 '21세기 사찰경영 비전과 발상의 전환', 송혁관 KHIN컨설팅 소장의 '왜 경영혁신이 21세기 화두인가', 박문수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의 '2010, 미리 가 본 한국종교', 박윤애 블룸티어21 지역사회개발실장의 '신도조직의 효과적 관리와 활용',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지자체와 함께 일하기',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의 '그린마케팅의 사찰도입', 송진국 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정보를 활용해야 미래가 있다' 등의 다양한 강좌로 진행됐다. 매일 실무위주의 강의가 끝난 뒤에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최종 워크숍을 개최해 산간 및 도심에 맞는 21세기 사찰 모형을 도출했다.

한편 신도교육 기관인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불교계 최초로 '불교종무원 육성학교'를 개설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겸비한 인재양성에 나선다.

불교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불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9일 개강하는 불교종무원 육성학교는 22~35세 고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둘째주부터 매주 수 · 목 · 금요일 주 3회씩 6개월간 강의한다.

모집분야는 포교, 행정, 경리, 홍보영업, 인터넷관리 등이며 교육내용은 한국불교의 현황과 과제, 종무원의 역할과 대인관계 및 자세, 응용실무교육, 각 종무직에 대한 실습 교육, 인생관 및 진리관, 참선수행, 사회참여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051)466-4080

이러한 종무행정 교육의 등장에 대해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불교계에서 처음 시도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선진 흐름을,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의 경영에 접목하자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해 불교계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 천미희 기자



故 김영한 보살 추모비 제막 과거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치'의 산실인 대원각을 조건 없이 법정스님에게 기증해 사찰로 거듭나게 한 고(故) 김영한 보살을 기리는 추모재와 추모비 제막식이 21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다.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덕조스님(길상사 주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없이 보시한 김영한 보살의 선하고 귀한 뜻을 기리고, 이를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추모비를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불교환경연구소 세운다

환경연대 내년 5월… '어린이 환경수비대' 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가 '불교환경연구소'와 '어린이 환경수비대'를 창립하고 불교생태운동의 이론과 실천 접맥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는 22일 조계사 강의실에서 제2차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5월경에 불교환경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불교환경론을 정립, 불자의 환경 및 문화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벌일 불교환경연구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처와 NGO협력처를 두고 불교환경학회, 경전문헌학회, 환경법령학회, 환경교육학회 등 4개 분야 학회와 사무국, 교육 · 출판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석사학위 이상의 불자들로 전문연구위원을 선정해 불전을 통한 환경문제와 한국불교학의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종교와 환경 및 관련 법 연구, 스님들의 자연 · 문화 ·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 사찰 환경교육 및 국제 환경연대 및 분쟁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에 앞서 방학 중에 조계사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사찰 환경 수호와 어린이들의 불교적 가치관을 키우기 위해 (가칭) '어린이 환경수비대'를 창립, 본격적인 불교환경 실천에도 나선다. 어린이 환경수비대는 각 사찰 어린이법회를 중심으로 우리 절 가꾸기, 자연생태 관찰, 환경백일장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백두대간 조사' 사업과 관련 이달 중에 오대산 지역조사 보고서를 내년 9월까지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구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김재경 기자



가산삼학총서 발간기념법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23일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가산불교연구원 개원 10주년과 <가산불교대사림 제4권> · <가산삼학총서> 발간 기념, 지관스님 문화훈장 서훈을 축하하는 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한화갑 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포럼' 28일 발족

서울시에 인근 빌딩 신축반대 시민청원키로

조계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조계사 만들기의 방향과 과제'(유상오 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장), '문화 및 수행공간으로서의 조계사 구상'(김남수 조계사 기획계장)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조계사 포럼은 발족 후 12월초 조계사 앞 24층 빌딩 신축 반대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서울시에 시민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12월 중순 '조계사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럼의 방향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조계사 포럼에는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임산 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를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등 10여명의 시민단체 인사와,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김도년 서울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8명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오채현(조각가)씨 등 6명의 문화 예술인,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등 불교계 인사 10여명을 망라한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계사 김남수 계장은 "경복궁과 조계사,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종로일대의 역사 문화 환경을 살리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며 "조계사가 시민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정책을 생산하는 '상설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청주교도소 교화위원들 '부부 만남의 집' 마련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해온 속리산 법주사, 기독교 세진회 청주지회, 천주교 청주교구 등 3개 교단 성직자들이 23일 재소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부 만남의 집'을 열었다.

3개의 방과 주방, 텔레비전, 냉장고 등 생활도구를 갖춘 만남의 집은 5년 이상 장기 복역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기능자격증이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재소자를 선발해 1박2일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했다. 김재경 기자

생활보호대상자 무료불교기본 교육

조계사, 27일 강좌개강

조계사(주지 지홍)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불교기본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불교기본교육 강좌는 불교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기초교리, 참선 수련회, 발우공양 등을 병행한다. 무료수강제는 이달 27일부터 개강하는 제34기 불교기본교육 강좌에서부터 적용된다. (02)732-2183 한명우 기자

교불련 추계학술대회

12월1일, 조계종 불교회관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한국의 미래와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래와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김익수교수(한국체육대)의 기조발제에 이어, '청소년 문제의 불교적 대처방안', '인터넷시대의 청소년'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02)720-6618 오종욱 기자

경로당 14곳에 사회교육 강좌

은평노인복지관

서울 은평구 소재 경로당 14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의 '사회 및 재활교육 강좌'가 지역 노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은평구청의 지원을 받아 녹색경로당에 개설된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 사무소-어르신전용 문화센터'에는 하루 평균 70여 명의 지역 노인들이 방문, 컴퓨터나 어학 등과 같은 사회교육 강좌를 듣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관 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사회 및 재활교육 강좌를 열고 있는 신사1동 · 불광 3동 · 구산경로당 등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경로당 노인들에게도 사회 및 재활교육 강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교계 복지관 중 처음으로 실시한 '복지관-경로당 연계 사업'이 당초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다른 경로당에 분관 사무소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로당 내 사회 및 재활교육 강좌를 늘이고, 겨울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108배 이색선거운동

총여학생회 선거 열기로 가득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효관 앞 광장에 자리를 깔고 여학생 2명이 나란히 합장 발원을 한 후 108배를 시작했다. 총여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여학생 후보의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19일부터 일주일간 원효관 앞에서 계속된 108배의 주인공 노태경(조경학과 3) 총여학생회장 후보는 "진리를 널리 펴라는 뜻의 법명인 '전진해'를 깊이 새기며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108배도 정성껏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정 · 부 후보가 108배를 하고 있다.